

자제 요청에도 예배 강행... 광주, 코로나19 확산 '공포'

양림교회(계단교회) 200여명 예배...신도 3명 참석 후 확진
시민들 "교회가 사회적 책임과 역할 못하고 있다" 비난 봇물

정부와 광주시의 주일예배 자제 요청에도 주일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사회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3·5·6·7·8·22면>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16개 교구 내 모든 성당의 미사를 중단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 가톨릭과 달리, 교회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

2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여·48)씨와 B(21)씨, C(여·83)씨가 지난 1일 광주시 남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양림교회(일명 계단교회) 주말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행사·모임 등의 자제를 요청했고, 광주시는 이용설 시점까지 나서 민간영역이나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중집회 및 행사 등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양림교회는 이 같은 요청에도 200여명이 참석한 주일예배를 강행했다.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확진자 2명은 이날 방송실에서 주일예배에 참여하는가 하면, 유·초등부 및 성인 예배에 잇따라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10여명에 이르는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회의 소극적인 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박재만 광주시 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위험천만인 줄 알면서 예배를 강행하다니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우려했던 일이 터진 것 같다.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 예배 취소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양림교회는 폐쇄된 이날, 뒤늦게 교인들에게 침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도록 안내하는 문자를 보내 빈축을 샀다.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도 이날 주일 낮 예배를 비롯한 공적예배를 방송 설교, 인터넷방송 등으로 대체 활용하고 공동식사 및 소모임을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단협의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성명서는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모임과 교제 등을 자체도 록 요청했었다.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코로나 대책 관계자는 "지역 내 모든 교회를 상대로 예배 취소 및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것을 호소했지만 일부 교파의 경우 6·25 전쟁 때 예배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발하는 곳도 있다"며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코로나19 확진자 예배... 양림교회 방역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거주하는 모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가운데 2일 오전 아들이 지난 일요일 예배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양림교회(일명 계단교회)에 방역팀들이 출동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北, 단거리 발사체 발사
靑, 북에 강한우려 표명

청와대는 2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긴급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정상장 외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며 2월28일에 이어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한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참석자들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말 이후 3개월 만에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재개하고, 원산 일대에서 합동 타격 훈련을 계속해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취한 데 대해 강한 우려 표명과 함께 중단을 촉구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발사체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작년 11월 28일 이후 95일 만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유치원·초·중·고교 개학 2주 더 연기...23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다. 개학이 3주 연기된 것은 사상초유의 기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학을 2주일 추가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 개학일은 이날 23일로 미뤄졌다.

유 부총리는 개학을 예년보다 총 3주 미루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이는 데 지금부터 2주 동안이 중요하며,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1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학생 학습을 지원하고 생활을 지도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각 학교는 이번 주에 담임 배정 및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와 EBS 동영상 등 학생이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개학 연기 기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 교실이 연장된다.

교육부는 학원도 휴원하도록 재차 권고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사·도 교육청 합동으로 펼치던 학원 현장점검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 대구 환자 조만간 이송

시민들에 외출 자제 당부
종교 집단활동 중단 요청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대구지역 환자의 광주 이송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른 시일 내에 대구시와 환자 이송 인력 및 방법 등 협의를 마치고 대구 환자 이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주시는 빛고를 전남대병원, 시립 제2 요양병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에 환자를 수용할 계획이다. 빛고를 전남대병원은

35실, 시립 제2 요양병원은 24실을 각각 갖추고 있다.

광주시는 3m 이격을 허용해 2인 1실로 가동하면 105~109병상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중 최대 60병상을 대구 환자 치료용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날 일주일만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환자 수용에 대비해 일정 병상을 남겨두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동식 음압장치도 준비했으나 경증 환자는 음압시설보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해도 좋다는 정부 지침에 맞춰 환자를 선별 치료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다만 경증 환자들은 먼 이동

거리 등 때문에 대구를 떠나기를 꺼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중증 환자까지도 수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종호 광주시행정부시장은 "광주의 상황도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구시와 이송 인력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대구측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송될 환자 수 등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꼭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또 종교계엔 다중이 모이는 집회나 예배 등 종교활동 중단 요청과 함께, 이를 어겨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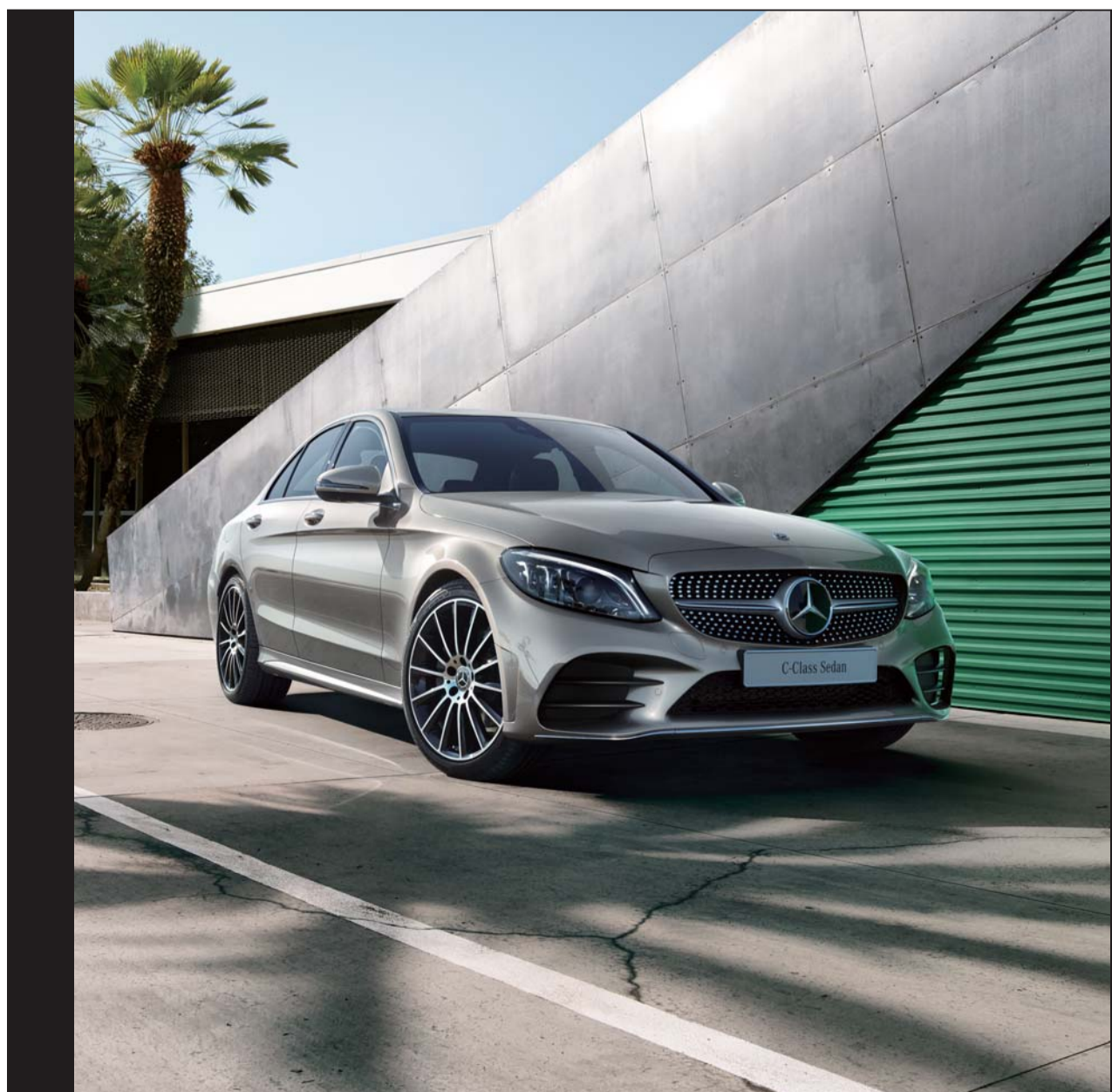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월, 역사에서 일상으로 - 가짜뉴스 ▶9면

굿모닝 예향 ▶18·1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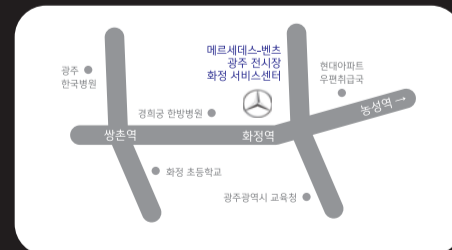
KIA에 녹아드는 외국인 선수들 ▶20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심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